

## ‘가상화폐 범죄 단속’ 이끈 한인 검사, 법무부 부차관보 임명

연방 법무부에서 북한, 중국 등의 가상화폐 범죄 수사를 이끌었던 한인 최은영 검사가 법무부의 대테러 기능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NSD) 부차관보로 임명됐다.



▲ 최은영 검사. 사진=dcfintechweek.org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최은영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 국장이 최근 대테러·방첩·수출통제·사이버 수사 및 북·중·러 등 적성 국가들의 안보 위협 조사 등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발표했다.

최 검사는 법무부 발표가 있던 날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글을 올려 “국가안보국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안보국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북·중·러 및 사이버 해커들의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할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차원에서 가상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할 NCET을 신설하고 최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

NCET는 지난 1월 프랑스 당국과 공조해 인터넷에서 마약 등 불법 거래 관련 송금에 활용된 홍콩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즐라토’를 압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수학한 최 검사는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최 검사는 현재 법무부 내에서 가상 화폐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 OC한인축제재단, ‘아리랑축제’ 입장료 부과 검토

오렌지카운티(OC)한인축제재단(회장 정철승, 이하 재단)이 오는 10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가든그로브 파크(9301 Westminster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열릴 예정인 제39회 아리랑 축제 관람객에게 3달러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정철승 회장은 축제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03~2004년에 개최됐던 아리랑축제에서 1인당 2달러의 입장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2005년 축제부터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입장료 부과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라며 “만약 입장료를 부과한다면, 징수된 입장료는 축제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성공적인 축제

홍행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후 흑시라도 남은 입장료 수입이 있다면 가든그로브시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리랑축제에는 베트남계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계 부스 판매와 출연진 섭외를 맡은 우엔 씨는 “요식업체 등 많은 베트남계 벤더가 부스를 마련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며 “아리랑축제가 한인과 베트남계 커뮤니티의 이해와 친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엑스포 부스’ 70개, 베트남계 커뮤니티 부스 100여 개 등 총 350~400개의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714) 943-6918

## 한인 여성들, 연방·주 지방법원 판사 지명 및 임명



▲ 이유미 판사. 사진=ballotpedia.org

한인 여성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백악관은 지난 26일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이유미 판사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판사는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5월 윌리엄 오릭 3세 판사가 전직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된다.

이 판사는 포모나대학교와 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북가주 공작레스 앤 레이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헤스팅 법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임명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을 관할하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첫 한인 판사가 됐다.



▲ 빅토리아 엘렌 클링겐스미스 검사. 사진=focuscolorado.net

한편 콜로라도주에서는 입양 한인 여성이 주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빅토리아 엘렌 클링겐스미스(Victoria E. Klingensmith·한국명 박선주) 현 검사를 제18지구 지방법원 판사에 임명했다. 클링겐스미스 검사는 9월 1일 취임한다.

클링겐스미스는 생후 6개월 만에 콜로라도 리틀턴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며 덴버대학교와 콜로라도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날 이갈수록 한국과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면서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친부모 찾는 일을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유전자(DNA) 등록도 하고,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한국 이름은 보육원 자료에 기록된 것으로 실제 이름인지는 불명확하다.

Implant <b>\$1,500</b>	잇몸치료 <b>\$600</b>	Exam X-ray Cleaning <b>\$60</b>
Crown <b>\$700</b>	틀니 <b>\$2,000</b>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b>Irvine</b>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b>L.A.</b>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b>Hacienda Heights</b>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